

야구장 응원 소음피해 소송 주민 패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빛·소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7일 오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에호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참을 한도(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해태타이거즈 및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던 무등야구장이 해당 아파트 주변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설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했다. 원고들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 "광주시와 구단은 향후에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와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6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주민 대표는 "이 같은 피해는 주거 지역 한복판에 야구장이 신설되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소송까지 힘든 시간이었다. 상생 방안을 찾았으면

챔피언스필드 주변 아파트 시·구단 상대 손해소 '참을 한도' 엄격히 판단...방음시설 등 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도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가 (피해 예방을 위한)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KIA 타이거즈 측 변호인은 "국내 최초 사례로 법률상 구체적 규제 기준이 없다. 야구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은 자연적 기능이

다. 소음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빛 공해와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수인한도)의 입증은 없다.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지를 찾아 피해 감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주민 1명 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으로 시작했다. 이후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이 증액되면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 원·시비 396억 원·기아차 300억 원 모두 994억 원을 투입, 2014년 3월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5만7646㎡ 규모로 개장했다. 경기장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주춘정 기자



카메라에 담긴 겨울 7일 오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인근 들녘에는 시들어 고개를 숙인 해바라기가 초겨울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국토부, 광주-나주 버스노선 갈등 '상생차원 해결 권고'

광주와 나주 시내버스 노선 갈등이 양 지자체 간 '상생협력 실현' 실효성에 올랐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나주교통이 광주 중심부인 조선대~전남대 신규 노선 구간 '정차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 제기한 버스노선 조정 신청건이 지난 6일 반려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나주교통(999번)이 광주시내 구간 정차지를 현재 15곳에서 37곳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하는 '운수사업계획 변경 조정신청 건'을 심의하고 '기각' 처리했다.

국토부는 '나주교통 999번 시내(농어촌)버스 조정건은 광주와 나주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양 도시간 상호일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조정 노력 하에 조정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이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광주시와 나주시는 1일 생활권(혁신도시 포함)이므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양 도시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관련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국토부 결정은 똑같은 조정 건으로 1회 이상 상정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며, 자체적 협의가 안 되면 '강제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시내 버스는 총 6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 방식의 광주 시내버스 02·170·

196번이 나주혁신도시를 포함해 3개의 나주 구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또 나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어촌버스로 분류되는 나주 시내버스 160·999·1160번도 광주 구간 3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광주와 나주 시내버스 사업자 간 노선 갈등은 해당 노선이 풀고 있는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요인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양 지자체 간 버스노선 갈등은 지난 2014년 10월 출범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에 조만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양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성인오락실 투자' 단속정보 제공 경찰관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에 투자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로 광주 광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사와 오락실 업주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한 지역에 위치한 B씨의 성인오락실에 5400만 원을 투자한 뒤 16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또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업주 B씨로부터 1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A 경사를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뇌물수수 팀장급 한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공사 수주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전전력 모 지사 팀장급 A 씨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까지 모 업체 대표 C 씨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2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C 씨로부터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 C 씨는 '잘 배달라'는 취지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의 도박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뇌물 범죄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 마련' 상습 상가털이 20대 구속

순천경찰서는 7일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한 회사에 침입, 라면과 옷을 가져가는 등 8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순천과 여수지역 상가 4곳에서 5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고 보안이 허술한 상가를 골랐던 뒤 잠정 실창문 등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다른 상가 10곳에도 침입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출소 3달만에 성당 침입 현금 훔친 60대 영장

담양경찰서는 7일 성당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오후 7시께 담양군 성당 2곳의 창문과 잠금장치를 공구로 부수고 침입,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천주교 신자였던 이씨는 성당 사제관과 사무실에 현금기 보관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이씨는 범행 직전 기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 렌터카를 빌린 뒤 성당을 미리 둘러보며 보안이 허술한 곳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절도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8월21일 출소했으며, 과거에도 성당을 털어온 전력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덤프트럭 적재함에 전선 걸려 전신주 '파당'

7일 오전 7시36분께 충북 제천시 고령동 고령육교 부근에서 적재함을 들어올린 채 운행하던 2t 덤프트럭이 전신을 건드렸다.

이 사고로 전신주 4개가 국도 5호선 바닥에 쓰러져 출근길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인근 100여 가구가 30분가량 정전이 됐다.

사고 당시 지나는 보행자와 차량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적재함이 울려진 것을 몰랐다는 덤프트럭 운전자 Q(58)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림로 340번길길 5

광산구